

1980년대, “87년 노동자대투쟁” 한국노동운동의 발전

박석민(87년 영동포산업선교회 간사 / 전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1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

1. 혁명 광주! 1980년대 노동운동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다!

유신체제가 갑자기 무너진 틈을 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은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쿠데타 정권을 인정함으로써 전두환 독재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광주민중학살까지도 묵인 했습니다. 미국은 친미반공국가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보였을 뿐 한국의 민주발전과 민중의 생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80년 봄, 노동자와 학생들은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치 실현을 외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노동조합 민주화투쟁에 나섰습니다. 사북에서는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학생들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5월 15일 학생과 시민 수십만 명이 서울역 광장을 꽉 메운 채 계엄철폐, 유신 및 군부세력 퇴진을 외치며 사회민주화를 요구했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계엄과 군인의 군홧발에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 홀로 광주에서 신군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학살과 철저한 고립 속에 27일, 도청에서의 항쟁을 마지막으로 광주민중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신군부의 폭력성과 정권의 정체성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광주항쟁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이념, 동력, 대상, 방법 등 근본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후 민중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낸 우리 운동에 변혁성을 갖게 한 “마르지 않는 샘” 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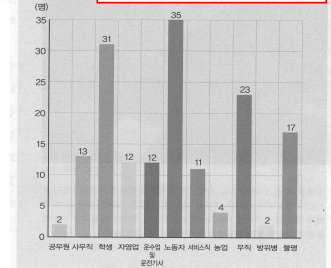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에 와서 광주정신과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 구도청을 철거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피로 써내려온 민주주의

와 혁명정신과 투쟁, 그리고 반드시 노동자 민중이 승리한다는 역사의 큰 흐름을 거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 도청 앞 집

1980 ~ 1987년	
주요 사건	· 1980년 5월30일 : 서간영광 강간가해 광주학생 전경군 유괴하여 투신 자살 · 1980년 5월20일 : 대청방 738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 사과 요구하여 서울 시민들 10만 명가
1988 ~ 1992년	
주요 사건	· 1988년 11월8일 : 국회 광주청문회 시작 · 1988년 11월25일 : 노태우 대통령,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
1993 ~ 1997년	
주요 사건	· 1995년 12월14일 : 국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의결 · 1997년 4월7일 : 12·12 및 5·18 사건 15주년 기념식 개최
1998 ~ 2010년	
주요 사건	· 2001년 12월21일 :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에 여야에 관한 법률 제정 · 2002년 7월27일 : 광주민주화운동에 여야에 관한 법률 시행, 광주 항쟁을 국경도시 승격



* 학생 사망자에는 최후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보다 중·고·고등학교와 재수생이 훨씬 많이 포함되었다. 노동자의 사망자는 일종의 노동자였으며, 서비스의 역시 포함이나 행상 등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 자료출처 : 최정기, '5·18민주화운동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418~421쪽 내용 재구성.

2. 광주민중항쟁과 노동자

계엄군에 의해 장악당한 광주도청과 금남로는 운수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 버스와 택시 등 200여대의 차량에 전조등을 켜고 계엄군의 저지선으로 돌진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5월 27일, 도청에 남아 있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

을 알면서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한 시대의 요구에 자산을 던진 시민군의 주력은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들만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영등래 역사 앞에 허인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넘기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3시 무렵 윤상일이 무기고 앞에서 무기 나누어주며 한 마디씩 연설)

【 ‘광주민중항쟁’ 의 의의와 교훈】

- ① 근현대사 민주투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항쟁
- ② 지배권력의 잔인한 폭력성이 확인되고, 어떤 세력이 실질적 지배세력인지,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 확인
- ③ 항쟁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맞선 무장투쟁 경험
- ④ 광주민중의 희생으로 깨진 미국에 대한 환상, 지배 본질을 알게 되고, 이후 반미운동의 대중적 전개
- ⑤ 광주민중항쟁의 패배는 민중운동의 큰 시련이었지만 우리 운동의 비약하는 계기. 1980년대 운동을 널리 퍼뜨리는 ‘저수지’가 됨. 민주화의 활화산, 운동의 분수령, 민중투쟁의 전환점이 됨.

3. 전두환 정권의 노동탄압과 다시 일어서는 노동운동

정통성과 도덕성에서 궁지에 처한 전두환 정권은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재야와 민주인사들의 발목을 묶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정치활동금지’ 그리고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하게 만들어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로 묶어 노동운동의 진출을 가로막고, 노동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반공법을 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유신시대의 잔재인 ‘사회안전법’을 유지시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와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은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화

학분야 투자조정, 자본자유화와 상품시장개방 등 대외시장 개방정책을 폈고, 노동통제 정책으로 저항을 막았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동결되었고,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통제 정책을 폈으며, 1970년대 민주노조들은 하나 들쭉 강제로 해산 당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저항에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회를 학도호국단으로 대체하고 전방임수 군사훈련,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등은 물론 지도교수에게 학생들의 동태를 보고토록 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집권 초기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지만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민중 투쟁의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

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학생운동전열은 민중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노동현장으로 투신하기 시작했고,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학계, 예술 등 진보전열 전체에서 변혁운동 이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정치의식의 고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각종 유화조치 속에서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지만,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도 확산되어갔습니다. 1983년말 이리지역과 인천지역 해고자들이 전개한 블랙리스트 철폐운동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등이 이어지고, 창계피복노조는 강제 해산된 후에도 꾸준히 합법성 쟁취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약법에 대한 법 개정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신규노조 결성투쟁과 노조민주화투쟁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1984년 5월 25일 대구에서 시작된 택시운전기사의 파업시위는 1984년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킨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민주노조가 결성된 사업장들이 임금인상투쟁을 주도하며 노동조합이 민주화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임금인상과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조건개선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대기업 남성사업장에서 전개되었고 50년대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 노동자 동맹파업이 전개되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예고하고 준비했습니다. 1986년에는 53 인천투쟁 등 많은 정치투쟁이 두드러지고 지역단위의 가두투쟁들이 활발했습니다.



4.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낸 “구로동맹파업”

1980년대 초반 정권의 탄압과 강제해산으로 거의 초토화된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3~4년 만에 더욱 강력하게 성장, 한국전쟁 뒤 처음으로 연대파업투쟁을 쟁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투쟁이 노동자 계급의식이 깨어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정치구호는 주로 학생들만 내걸었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 ‘구속자 석방’ ‘노동부장관 퇴진’ ‘노동3권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노동자 계급의 것으로 넓혔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서서히 정치투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이 끝난 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또 참여했던 노동조합들이 약화되어 노동조합만으로는 궁극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정치조직을 건설하고, 정치투쟁에 자신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은 1950년대 이후 맨 처음 일어난 동맹파업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주의, ‘조직보존주의’를 뛰어 넘는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대중 자신의 조직적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지는 지배세력]

전두환 정권은 이철화장영자 사건, 명성사건 등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잡혔습니다. 1986년 7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5공화국을 결정적인 위기로 내몰아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모든 개헌논의를 중지하고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학살, 구속과 고문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투쟁은 각계각층의 참여로 발전하며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비교됩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이 ‘직선제 쟁취’ 등 초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였던 것처럼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자율적 노동조합(어용노조 거부) 인정 등 초보적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노동운동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즉, 1960~80년대까지 너무나 열악했던 노동조건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당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자본의 입장에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대투쟁은 1946년 전쟁의 9월 총파업과 같은 정치적 총파업 형태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일어났다는 점에서 분산적인 투쟁이었습니다.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싹을 틔워 준 거대한 사건이었고, 그것은



이 전 용 노 가 아 자 주 이고, 주 적 한 국 동 운 의 역 를 새 게 다 쓰 기 작 한 쟁 이 었습니다.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정권은 6·29선언으로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곧 이어진 노동자대투쟁까지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전두환의 호헌조치를 찬성하고 나서 국민 여망에도 반대한 뿐 아니라 반노동자, 반민중, 반역사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 1987년 7-9 노동자대투쟁

1. 1987년 노동자대투쟁 개괄

● “87 노동자대투쟁” : 노동자, 투쟁으로 새 하늘, 새 땅을 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은 6·29선언으로 이어졌고, 정치권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주축하던 때 다시 투쟁의 불길을 지핀 것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파업투쟁을 기점으로 현대그룹 전체로 번졌습니다. 투쟁은 울산에서 부산, 마산, 창원으로 확대되었고 현대그룹노조협의회가 결성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8월초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8월에 하루 평균 83건의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7~9월에 총 3,31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987년 8월말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 333만 명의 37%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입니다.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 결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2,725개였던 노동조합이 1987년 말에는 4,086개로 늘었고, 조합원은 105만 명에서 12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7-89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1987년 이전	1989년 10월
노동조합수	2,742개	7,861개
조합원수	100만명	190만명

7, 8, 9 노동자 대투쟁은 중화학공업 노동자 등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기 섬유관련 공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여성 중심) 투쟁과

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 운동의 발전, 그리고 노동운동은 자본과 권력이 그 어떤 탄압을 가해도 이제 한국노동운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대중운동으로, 멈추지 않는 큰 강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격과 의의

○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격

1987년 노동자투쟁은 앞서 말한대로 대체로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비통합적 노사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수 천 건의 노동쟁의가 체계적인 계획, 전략, 지도력 없이 거의 동시에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국, 지역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과 지도구심이 없었음에도 노동자들은 권위주의적 통제가 갑작스럽게 약화되는 기회를 포착하여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와 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대투쟁을 통해 대개의 경우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낮은 임금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 속에서 전 근대적 노무관리에 찌들어 노예처럼 살아

아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설움의 표현이자 인간답게 살고자 한 기본욕구였습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노조설립과 파업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됐고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대등한 노사관계로 노무관리 방식을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특징과 의의

하루 쟁의전수, 노조설립 수 등을 보더라도 87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전쟁 뒤 벌어진 투쟁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전국적인 파업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투쟁에 앞장섰으며,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예전에는 노동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병원의 간호사, 사무직문직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노동운동 대열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이후 파업이 대부분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 경제적인 요구 속에 출발했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요구를 민주노조 건설이나 노동조합 민주화라는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선파업 후교섭’을 통해 노동악법을 투쟁으로 무력화시켰고 투쟁의 성과로 민주노조운동을 꽃 피우고 일상화시켰습니다.

87년 대투쟁을 통해 건설된 자주적이고 활동에서 민주적 지향을 갖는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제약을 지역적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넘어섰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받으면 이에 맞서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을 엄호, 지지했으며 공장점거 파업과 가두투쟁 등 강력한 전투성을 갖고 투쟁이 진행됐습니다.

○ 노동자대투쟁 이후 변화

조직력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 “이제 과거의 노동자가 아니다”

87년 대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굴종적인 삶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로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면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했고, 어용노조를 확고하게 거부했습니다. 노조수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노예의식이 아닌 계급의식과 과학적인 사상을 정립하면서 변혁의 힘있는 주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통성에서 늘 정치적 부담과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찾은 노태우 정권의 정국

해법은 ‘보수대연합’이었습니다. 민주정의당(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당이 민주자유당(민자당-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3당 합당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 구도를 만든 것이기 하기에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이 보수대연합을 강제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1986~1988년의 3저 호황 이후 대외 경쟁력 강화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론을 유포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렸습니다. 세계경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통합과 블록화로 인해 수입개방 압력과 통상마찰을 빚었고, 이는 산업구조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자동화·합리화의 명목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1987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고도의 인사제도, 노무관리 등을 강화하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안합수부 통한 국가권력의 직접적 노동운동 탄압, 무노동무임금 적용, 업무조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인상가이드라인 설정, 총액임금제, 제3자 개입금지 등 재벌위주의 노동정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2. 서울 노동자대투쟁

1) 1985년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투쟁과 구로동맹파업

<1985년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투쟁>

▶ 대우자동차는 오랫동안 임금은 낮고 노동조건은 극히 열악한 데다 사무 관리직과 차별이 심하였다. 이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투쟁하였으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불만은 누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평공장

에는 80년대 초반 송경평 등 대학출신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와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적인 활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집회와 시위, 각종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의식을 높여가면서 노조와 별개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러던 중 1984년 12월 18일 노조 대의원선거에서 22명 가운데 12명의 노조 민주화파를 당선시키고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집행부는 무기정회를 선포하였고 노동자들은 12월 24일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정추위)를 구성하여 대항하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12월 28일 송경평 등 핵심인물들을 해고하였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85년도 임금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회사는 창입 이래 최대의 손익을 올렸고 현장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제치고 「근로자의 합성」 등의 소식지 작업과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이 열기에 밀린 노조 집행부는 3월 22일 임금인상 요구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교섭을 지연시킨 끝에 낮은 임금인상을 고집하였다. 현장에 파업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노조 위원장은 4월 16일 파업돌입을 선언하였다. 파업은 인천공장과 부산공장으로 확산되었다. 회사 측은 파업대열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을 폈으나 노동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파업 농성을 계속하였다. 파업 3일째인 4월 18일 노동자들은 김우중 회장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술센터 3층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4월 20일 경찰의 강제해산 움직임이 보이자 노동자들은 각목, 쇠파이프, 신나통, 석유로 무장하여 대비하였다.

▶ 4월 21일과 22일 농성장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과 회사 측의 위협이 가중되는 속에서 김우중 회장과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결렬되고 23일에는 흥영표대의원과 김우중회장이 단독협상에 들어갔다. 마침내 24일 합의가 이루어져 25일 새벽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체로 근접한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노동자 8명을 구속하였고 회사 측은 해고 1명, 자진사퇴 1명, 3개월 정직 4명 등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 이렇게 하여 열흘간에 걸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막을 내렸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막강한 권력과 재벌기업에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쫓고 정면으로 맞섰고 그들이 대규모 재벌기업 산하의 중공업 남성노동자들이라는 점, 둘째, 지식인 노동자들

이 투쟁의 전면에 부상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셋째, 과거 노동쟁의가 자연발생적이었던데 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었던 조직적인 쟁의라는 것이었다. 또 이 투쟁은 노동관계법상의 제약을 뛰어넘어 탈법적이었으며 투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철저하게 현장 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특히 대우자동차 투쟁은 당시 지배적인 활동방식이었던 소그룹방식에 결정적이라 할만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지식인 노동자가 현장 노동자와 결합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고 치밀한 준비와 혁신적인 활동을 벌여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 냄으로써 조직 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 대우자동차 투쟁으로부터 한 달 후 구로공단에서는 10개 노조가 연대파업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곧 임금인상이 끝난 후인 6월 22일 서울 남부경찰서는 임금인상 투쟁 때 두 차례 철야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연행하여 구속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갔고 인근에 있는 가리봉전자노조, 효성물산노조, 선일섬유노조도 연이어 동맹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노조들은 민주노조의 각격격파를 위한 신호탄이라 인식하고 70년대 민주노조의 파괴과정을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연대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었다.

▶ 연대투쟁은 인근에 있는 남성전기, 세진전기, 톨코리아 노조로 확산되었고 구로지역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연합,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청계피복 노동조합,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기독교회관, 기록릭 노동청년회, 민중불교운동연합 등 수많은 단체들이 구로연대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의 살벌한 경계와 폭압적 제지를 뚫고 노동자, 시민, 학생 등이 가리봉 5거리와 구로공단역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성수동에 있는 삼성제약노조 250여 조합원들도 연대투쟁을 지지하며 중식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였고 6월 28일에는 부천시 노조원 120여 명이 출근과 동시에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쇠파이프와 통풍기로 무차별 난타를 가하여 농성을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을 몰아냈다. 노동자들은 식수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탈진 심신하였고 농성장에는 학생 18명이 병, 우유, 의약품을 질여지고 지방을 타이며 합류하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폭력에 2백여 명과 사복경찰을 동원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강제해산시켰다.

▶ 이렇게 구로연대투쟁은 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연대투쟁에 참가한 노조는 10개에 약 2,500여명이었다. 대우어페럴가리봉전자조성물산부흥사선일섬유는 동맹파업을 벌였고 세진전자품코리아청계피복노조남성전기노조는 준법농성, 중식거부 등을 통해 대우어페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청년, 학생, 재야단체 등 운동 세력들은 성명·농성가두시위를 벌여 노동단일 중지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을 엄호하였다. 투쟁과정에서 43명이 구속, 38명이 불구속입건, 47명이 구류를 받았으며 700여 명이 이르는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강제사직 당하였다.

▶ 구로연대투쟁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기록을 남겼다. 먼저 이 투쟁은 대우자동차 투쟁과 달리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 중소기업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었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 투쟁은 1950년대 이후 기업단위 노조가 주체가 되어 벌인 최초의 지역연대투쟁이었다. 노조들은 개별 사업장의 이해를 뛰어넘어 구호로만 외쳐지던 노동자의 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대투쟁은 각 노조가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여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차원의 충실한 일상 활동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의 결과물이었다. 파업에 동참한 조직들은 대우어페럴노조가 결성될 무렵 같이 결성되었고 초기부터 소모일 활동과 교육활동, 소식지 발간 등 일상 활동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교환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서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또 가두시위 집회에 같이 참여하여 연대의식을 키워줬었다.

▶ 다음으로 구로연대투쟁은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 ‘민주노조운동을 짓밟는 모든 노동악법의 철폐’, ‘부당해고자의 복직’, ‘노동부장관의 퇴진’, ‘일금동경정적의 포기와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투쟁목표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초보적이나나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

2) 구로지역 노동운동 (노동조합 투쟁)

※ 80년대 전반기, 1985년 구로동맹파업,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이후 한국 노동운동 투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구로지역 노동조합과 노동자 투쟁 자료 첨부합니다. <자료 출처 [구로공단 19662013]>



처지가 비슷한 여공들과 함께 12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일했고, 점심시간 외에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했지만 월급은 12만원이었다. 기술사가 없어서 보충금이 10만원 원인 다락방에서 전구와 함께 쉬위를 하였는데, 월급 12만 원 중에 월세로 3만 원을 내야 했기에 늘 살림은 팍팍했다. 회사는 날로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싸니전기 노동자들은 1989년 3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체 직원 1,300명 중 1,000명이 조합에 가입했다.

노조 설립 후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992년에 소사장제를 도입적으로 도입했다. 싸니전기는 관리자들이 부서별로 소사장을 관리하도록 했다. 작업장, 식당, 기계까지 싸니전기에 있을 때 쓰던 것과 같은데, 자신이 속한 부서 이름과 사장님만 바뀌었다. 그러나, 싸니전기에 고용되었을 때와 달리 소사장 제도 하에서는 고용, 복직, 4대보험, 임금 등은 소사장이 책임져야 했기에 고용이 불안해졌다. 소사장들은 고용 안정보다는 기업 경영 이익 창출이 우선이었기에, 노동자들은 경영악화에 따라 연계를 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다. 또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사장제를 선택했는데, 상여금이나 피직급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소사장제 도입을 두고 싸니전기 노동조합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반대하였지

만, 결국 소사장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재편되었다. 노조는 소사장제를 파업투쟁으로 반대했으나, 막지 못하고 위원장 등 4명이 해고된다. 당시 이화자 노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소사장제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한 부서로 돌아 놓았으며, 소사장을까가 시행되는 생산 현장에는 출입을 막아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봉쇄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1992년 말에는 85명의 조합원만 남게 된다. 80년대 말 1,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싸니전기는 2013년 현재 충북 충주에 싸니전자(주)라는 이름으로 수정전동자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93명이 일하고 있다. 수정전동자는 충주공공와 중국공장, 필리핀공장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지만, 함께 일했던 노동자 1,300여명은 대부분 회사를 떠났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가쳐오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출발점인 소사장제도를 도입한 싸니전기는 2003년 공장 부지만을 매각하면서 구로공단을 떠났다.

※ 소사장제란 7~8명으로 이뤄진 분업식 단위마다 자기 다른 회사를 세히 운영하는 방식이예요. 원장님들은 소사장에게 직원들과 생산과비용, 판매비주요, 판매 충진을 제외한 각종 업무를 대해주게 되어요. 생산과 관리자(조장, 반장, 주일 등)가 소사장이 되어 생산 관리의 일부를 맡아, 그 공장의 생산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말한답니다.

었다. 특히 정치적 요구들이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틀을 바탕으로 노동자 대중의 요구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이었다.

▶ 또한 구로연대투쟁은 다른 부분의 민중운동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민중운동 내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연대투쟁은 노동운동을 경제적인 투쟁으로 파악하는 시각, 단지 부문운동으로만 파악하는 시각 등 기존의 인식들을 바꾸는 계기를 이루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해 법의 틀에 묶여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투쟁하는 조직체라는 인식을 타파함으로써, 기업별 노조라는 정적적 틀에 함몰되지 않고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삼경복장



럼 속이 삼경복장에 취직할 유채린 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시다*입부터 시작했다. 잔업을 안 한다고 하면 혼났고,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비싼 재봉에 불만을 냈다고 뺄을 맞기도 했다.

삼경복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대변하는 어용노조*이었다. 민주노조가 꿈이었던 장석희 씨는 민주노조 건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알리기 위해 동료들과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를 하기로 했다.

“출근할 때 미리 배에 유인물을 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근 끝난 뒤 퇴근하지 않고 화장실에 있다가 밤 12시가 되면 유인물을 돌리는 거죠. 볼 꺼진 작업장은 정말 무시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바로 옆에 공단분부가 있어서 가로등 불빛이 정말 대낮처럼 밝았죠. 간

독 긴장한다나 으스스한 작업장에 들어가려니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는데 장문으로 쏘아져 들어오는 불빛은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 일로 1985년 11월 장석희 씨 2명은 해고를 당했다. 장석희 씨는 복직을 위해 출근투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사대*에게 매일 얻어맞았고, 1986년에는 전경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으며, 나중에는 신경성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머리가 다 빠졌다. 4년의 법정투쟁을 통해 1989년 5월 ‘유인물 살포자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를 받았다. 결국 장석희 씨는

1989년에 복직하여, 꾸준한 현장 활동을 했으며 91년 말에는 8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사는 노조활동이 활발해지자 1995년 폐업을 하고 2공단에 공장을 차웠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1공단 원래 자리에 코오롱모드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그래서 결국 민주노조를 건설하였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인 조합원들은 회사의 폐업으로 손실권에 실직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1: 일본어 시다(*하라는 뜻은 말 그대로 야생라에서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을 뜻해요. 봉제공장에 가면 ‘시다’라고 부르는 직책이 있는데 실장 또는 일 같은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요. (내이버 지식백과, 내가 나 ‘시다’하러 가? 인용)

*2: 어용노조란 사용자에 의해 자구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향을 대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이예요.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참여있거나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얻어 오는 조합은 자구성을 잃고 어용화 될 위험성이 크므로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내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인용)

*3: 구사대는 회사를 구하는 조직*이라는 뜻이예요. 노조 조합원에 대항하여 사측에서 만든 반조합원 단체입니다. 민주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들 강요, 조합원들의 단체행동 시 무력진압에 앞장서는 등의 일을 합니다.

대협

⑥



옛 대협 자리에 생긴 대용포스트타워 1차

“어용노조는 필요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조건 개선하자”

대협은 미국 마텔사에 바비인형, 인형옷을 수출하던 회사로 1공단 외환은행 건너편에 있었다.

직원이 가장 많을 때는 3,000명까지였다. 18~22세의 연소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작은 인형과 인형옷을 만들기 때문에 핀셋으로 잡고 미싱을 해야 해서 작업이 고되고 힘들었다.

1975년 당시 임금만 처음 입사한 노동자가 일당 280원, 미싱사 400~580원이었고, 4년 이상 근무자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임금이 시달렸다. 대협은 대기업임에도 기술자가 없어 어떤 노동자들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싱사가 수

백 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싱사 양성소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3개월 교육 후 미싱을 하게 했는데, 임금을 더 주지는 않았다.

1976년 7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 400여 명은 이봉우 씨를 비롯하여 직선으로 선출된 노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어용노조 창, 대협 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8월에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회사는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하였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식비의 반의 부담을 해주지 않거나, 해고를 시킨다고 말하면서 노조에 강제 또는 대리 가입을 추진했으나 노동자들은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7년 3월, MBC TV 카메라봉 프로그램에 회사관계자와 나와 “대협은 평균봉급이 48,000원이고, 도시설도 있는 회사”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 방송에 나가면서 노동자들은 회사의 거짓말에 분개하게 된다. 당시 근무했던 노동자 조복순 씨의 말에 따르면 방송 당시 월급은 2만원대 안되었고, 도시설은 있지도 않았다 한다.

이 후 노동자 740여 명은 회사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고, 500여 명이 회사마당에서 임금인상, 악덕관리자 추방, 어용노조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 해, 7월 8일 노사업의회를 통해 노사업의를 하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 직선 노사업위원회의

* 진정서의 내용은 ① 임금률 100% 인상해 줄 것 ② 각 부서 조장들이 어떤 총책임자들을 너무 명대하지 말 것 ③ 근로자들에게도 권리의 사익과 장이 불균형을 야기하여 줄 것 ④ 강제입장이나 강제전입을 요구하지 말 것 ⑤ 생리휴식 및 월차수당을 성실히 배 유급휴가를 줄 것 ⑥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대로 실시할 것 ⑦ 월당봉투에 전입시간을 기록하여 배포할 수 있게 해 줄 것 ⑧ 100원만 하루 식비를 인출해 줄 것 ⑨ 장기근속자는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줄 것 이었으며,

1977년 평정면 한 그룹 집단 200여 명이었는데, 선입사원 하루 일당이 280원이었다니! 월급인상과 100원만 하루 식비를 인출해 주는 것이 주장은 어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

동남전기

⑦



옛 동남전기 자리에 생긴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구로공단에서 가장 먼저 수출한 기업”

동남전기는 TV, 라디오, 엘프, 냉장고 등을 생산·수출하는 회사였다.

1,000여 명의 노동자가 3층 건물과 단층 건물 2개 등에서 일했으며, 운송장도 있었던 넓은 회사였다. 구로공단에서 가장 먼저 가동을 했고, 1966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13만 9,893불 어치를 국내 최초로 일본에 수출했다.*

조경수 씨가 1972년 3월에 입사했을 때, 월급이 6,000원이었는데 대 당시 쌀 한가마니 가격(9,800원)이 안 되었다. 노동자가 1본이라도 지가들을 하면 생산과장이 수위실로 돌려보내고, 각종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게 했다. 잔업과 특근을

강요했고,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면 강제로 시작서를 쓰게 만들었다. 1977년 3월 18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구사대를 만들어 수시로 간부와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민방위 교육시간에 출었다고 하고, 자진사표, 부서이동을 시켰다. 그러나 조합원의 힘으로 노조를 지켜냈고, 원종모방, 정계복계, YH부역, 콘트롤레이터 등 타 회사 민주노조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동남전기는 라디오, TV 생산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으나, 안양에 냉방과 공장을 세우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냉방과 회사의 적자를 메우느라 경영이 악화되어 1980년 부도가 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981년 추석과 1982년 설날에는 몇 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고향에 내려갈 여비조차 없었고, 생계가 막연했다. 병철을 알두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어느 날 조경수 사무장은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광화문에 있는 사장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사장 집에는 명절에 돌림 선물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남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돈은 있어도 일한 노동자들에게 줄 돈은 없었던 것이다.

노조는 체불임금을 해소를 위해 과업을 돌입했다.

그러나 군 출신 법정관리인은 “노조를 못 하면 회사 문을 닫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보다는 노조조합을 없애는 작업에 더 몰두했다. 1982년, 회사는 관리자들의 노조 가입을 요구한 후 노조에서 이를 거절하자 관리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남부경찰서 형사와 노동부 감독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조경수 지부장을 불신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후 구사대를 동원하여 지부장의 출근을 방해한 뒤, 회사를 ‘무단결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조경수 지부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군부 독재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 그러나 현재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동남전기 민주노조는 신정숙 작가의 소설 ‘의탄방’의 배경이 되었던, 70~80년대 민주노조 활동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대한광학

⑧



옛 대한광학 자리에 생긴 더 이모토타워지점다하, JNKIS지점다하, 동일테크노타운

“광학산업의 선두주자, 정부 정책에 따른 공장 이전에 맞서”

대한광학은 1공단 노동부 뒤쪽에 있었다. 직원이 800여 명으로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으며, 생산직, 도대장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광학기기업체였다.

1986년 장성환 씨가 입사했을 당시의 대한광학은 일당이 3,000원으로 임금은 10만 원이 안 됐다. 매일 9시까지 야근을 했으며, 일요일에도 거의 출근을 해서 전업을 무려 128시간이나 한 날도 있었다. 공장 안에 기술자가 있었는데, 자치회장을 두고 100여 명이 함께 지냈다. 동재는 심하지 않았지만 말이 기술자간이제다가 있는 한방에서 8명이 지내야 했으며, 쥐가 나올 정도로 환경은 지저분했다.

1985년 생산직 관리자 주임을 중심으로 노조를 설립했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였다. 구로공장 어용노조 시절에 노동조합의 간부인 대희원은 관리자인 주임이나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도발했다. 이 때 평범한 노동자였던 장성환 씨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대희원에 출마했다. 주임은 “나하고 해보자는 거냐?”라며 대놓고 장성환 씨의 대희원 출마를 못마땅해 했다. 잔업을 안 하면 안한다고 싫은 소리를 했으며, 일할 때 사소한 실수를 하면 욕을 하면서 모욕을 주었다. 또한 노조위원장이 직접 좋은 음식점에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등 대희원 선거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입했지만 장성환 씨는 2표 차로 당선되었다. 1988년 회사는 창원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인원을 50% 줄이는 계획을 내놔었다. 노동자들에게 공장지 지방이 없는 생활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큰 문제인데, 어용노조는 이를 노동자들과의 의사소통 없이 합의해 주었다. 이에 화가 난 노동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68일간의(4.19.~6.25.) 과업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공장이전을 막아냈다.

공장 이전 반대 투쟁 중에 장성환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너는 왜 굶판만 먹냐?”라고 물었다 한다.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했는데, 내막은 이렇다. 1987년 이후 구로공단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은 정협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노조 간

부들이 모여 각 노조들의 부서의 특성에 맞게 서로 조언도 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장성환 씨도 노조 간부 활동 당시 구로지역의 편집부장 모임을 나가고 있었고, 그 모임이 끝나면 다른 노조 간부들과 어울려 가리봉시장 광장 집에 자주 있었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던 대희. 이것은 경찰이 민주노조 간부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민간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1989년 말에 회사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제혜택 등을 준다는 정부 정책을 따라 다시 공장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2월 1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창원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150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창원으로 내려가지 않고, 230여 일 동안 투쟁을 벌였다. 긴 투쟁 끝에 노사가 합의를 하여 노동자 100여 명은 창원에 내려가기로 하였고, 회사는 또 내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며, 투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하기로 했다.

광학산업의 선두주자였던 대한광학은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경영정착을 이유로 폐업했다.

가리봉전자

⑨



옛 가리봉전자 자리에 생긴 서울시청민간지점다하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는, 살맛 나게 하는 노동조합”

(주)가리봉전자는 본사(독산동), 구로공장(제 1단지), 가리봉공장(제 2단지)으로 구성된 반도체 생산업체로, 원자재, 기술, 시장 모두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1984년도에는 순이익 9억 원이 넘는 회사였다.

노동조건은 구로공단 다른 사업장에 비해 좋은 조건이었다. 게릴라 모음 코리야에 노조가 있어서 가리봉전자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3년 초임이 일당 3,770원으로 동종외자기기업인 한국SG네트웍스(3,890원), 웨이차일드(3,850원), 모토롤라(3,943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다. 전자공

장이 그러하듯이 가리봉전자도 정규 노동시간은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짧은데, 8시간 3교대로 근무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원미경으로 정밀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력감파, 두통에 시달렸으며, 유해물질(납, 수지, 에폭시)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피부 알러지가 생기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무리한 생산량과 특근·잔업을 강요하고, 정소, 조식시간을 연장했다. 게다가 작업현장에서 관리자가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 불만이 쌓여 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영동보여상 산업체대학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였다. 또한, 노동자들이 휴식 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노조의 일상 활동들은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도록 해 주었으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즐겁게, 살맛나게 해주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힘을 합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난하고 못 배운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인 노동자로 성장 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이 안정적인 일상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1985년에는 임금인상 준비를 위해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물가 조사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 협상에 임했으며, 유해물질(납, 수지, 에폭시)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피부 알러지가 생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도 늘어 6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간부교육과 조합원 교육, 소모임, 소식지 발간, 문화 활동, 노동조건 개선 등을 통해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갔으며, 노조의 소모임 활동인 독서회, 풍물패, 동산모임 등이 다양하게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일상 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노조의 일상 활동들은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도록 해 주었으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즐겁게, 살맛나게 해주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힘을 합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난하고 못 배운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인 노동자로 성장 했던 것이다.

* 일일 총 24시간 3교대 지근 작업을 비롯해 모면, 가리봉정자는 8,600원인데, 한국SG네트웍스(5,510원), 웨이차일드(5,130원), 모토롤라(5,190)원미요인, 임금에 다른 회사에 비해 너무 낮을 일로

3교대 근무시간은 06:00-11:00, 11:00-22:00, 22:00-06:00으로 식사시간 35분, 휴식시간 2회 10분씩이었으며,

서울통상

(15)



♣ 서울통상 자리에 생긴 W-MALL

“최초로 적용된 제3자개입금지”

서울통상은 가발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약 1,5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어린 소녀들이었다. 전 서울통상 지부장 배옥병 씨의 말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여성 노동자들의 몸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배마' 타고 온 왕자님'에게 시집가는 것이었다 한다. 반지개, 그릇게, 이불게 등을 들어서 시집갈 때 삼푼자에 혼수품을 싣고 공장을 떠났다. 임금에 도급금도, 가발을 만든 개수만큼 임금을 받아갈 수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 2~3시에도 나와 일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월

급계산이 투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노동자들을 한숨지게 했다. 가발의 종류에 따른 단가와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서, 월급 계산을 다시 하여 자책을 받기도 했다. 기속사는 마포바다에 스티일이 들어오지 않아 지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격적 모욕이 심했는데 생산량이 적게 나오면 간부들이 노동자들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작업시간에 말을 하다 들리면 파귀를 때리고, 껌을 씹다 걸리면 껌을 얼굴에 이겨 붙인 채 사람들 앞에 세워놓기도 했다고 한다.

1980년 5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할 기미가 보이자 회사에서는 선수를 쳐서 어흥노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에 배옥병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옥상에 모여 도급게 폐지, 8시간 근무, 민주노조 인정 등의 요구를 걸고 농성에 들어갔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합의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삼당단체인 한국노총 섬유노조는 민주노조의 결성 승인을 거부했다. 그때 섬유노조 김승호 교신부장과 이목희 기획위원이 도움을 주어 5월 17일 밤 10시, 섬유노조 부위원장, 노동부 직원, 사장, 정보와 형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를 결성했다.

1980년 5월 18일 계열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회사는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며 노조를 없애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스스로 전업을 거부하고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9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부서별로 156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 노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배옥병 지부장은 1980년 노동계 청와대처로 지부장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며, 이후 노조 결성 당시의 철야 농성을 발미로 해고당한다. 또한 섬유노조는 서울통상의 노조 결성을 도왔다는 이유로 김승호 교신부장, 이목희 기획위원을 해고하였고, 이목희 씨는 노조 간부에 게 상담을 했었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 금지'*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1980년 이 벌이 만들어지고 난 후, 처음으로 격을 얻은 사례였다. 1981년 8월부터 회사와 정부에 의해 더욱 거세진 탄압으로, 12월 말에 노조가 와해된다.

★ 제3자개입금지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 노사협의, 쟁의행위에 관해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요, 1980년 말 제정된 노동법상의 신조항이었어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원에 의해 정당인 탄압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가 제 3이라는 건로, 제 3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의 해산, 노동조합 활동정지를 단행하는 대표적인 근로자 또는 퇴직요 (내 이비 지지해서 인용)

노동권에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을 생각할 때 (1995년 기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1997년 노동법 개정 시 폐지 되었어요.

효성물산

(16)



♣ 효성물산 자리에 생긴 마리오아울렛

“3개월만에 ‘신’이 되어버린 노동조합”

효성물산은 효성그룹 계열사로 신사복, 파카, 바마리 등을 만드는 봉제 수출회사였다.

1984년 11월 25일경에 2,200원, 미성사 초일이 2,550원으로 낮았다.

노동시간은 9시간이 기본이고,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까지 전업을 하였다. 기속사생들에게 복도, 현장, 마당, 식당 등을 청소시켜 기속사에서 조차 편하게 될 수 없었고, 세면장은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의 원천지였다.

효성물산에 다녔던 김영미씨는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의 몸을 꼬집거나 영영을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는 성추행을 일상적으로 저질렀어. 싫은 내색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했기에 거역할 수도 없

었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한 달에 6만 원 벌어 3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었어. 생활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했지.”라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효성에서는 1984년 노조 설립 전까지 7번의 노조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회사가 그때마다 주동자를 대방 해고하여 노조 결성을 막아왔다.

1984년 7월 16일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신고필증에 교부된 7월 25일까지 노조 결성식에 참여한 59명 중 40여 명이 회사의 탄압으로 탈퇴했다. 구로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회사 추무계장을 비롯한 관리자 2명이 서류를 탈취하여 달아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처벌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회사는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여 탈퇴시켜 받았고, 나중에는 위원장과 조합원 3명, 모두 4명이 사되었다.

1984년 11월 초일이 일당 2,200원, 미성사 초일이 2,550원으로 낮았다.

노동시간은 9시간이 기본이고,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까지 전업을 하였다. 기속사생들에게 복도, 현장, 마당, 식당 등을 청소시켜 기속사에서 조차 편하게 될 수 없었고, 세면장은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의 원천지였다.

효성물산에 다녔던 김영미씨는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의 몸을 꼬집거나 영영을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는 성추행을 일상적으로 저질렀어. 싫은 내색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했기에 거역할 수도 없

었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한 달에 6만 원 벌어 3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었어. 생활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했지.”라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효성에서는 1984년 노조 설립 전까지 7번의 노조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회사가 그때마다 주동자를 대방 해고하여 노조 결성을 막아왔다.

1984년 7월 16일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신고필증에 교부된 7월 25일까지 노조 결성식에 참여한 59명 중 40여 명이 회사의 탄압으로 탈퇴했다. 구로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회사 추무계장을 비롯한 관리자 2명이 서류를 탈취하여 달아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처벌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회사는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여 탈퇴시켜 받았고, 나중에는 위원장과 조합원 3명, 모두 4명이 사되었다.

1984년 11월 초일이 일당 2,200원, 미성사 초일이 2,550원으로 낮았다.

노동시간은 9시간이 기본이고,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까지 전업을 하였다. 기속사생들에게 복도, 현장, 마당, 식당 등을 청소시켜 기속사에서 조차 편하게 될 수 없었고, 세면장은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의 원천지였다.

효성물산에 다녔던 김영미씨는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의 몸을 꼬집거나 영영을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는 성추행을 일상적으로 저질렀어. 싫은 내색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했기에 거역할 수도 없

대우어패럴

(17)



♣ 대우어패럴 자리에 생긴 하이힐

“‘대우어퍼저러’에서 ‘구로공단’의 희망”으로”

대우어패럴은 1968년 구로공단에 입주한 원림산업을 1983년에 대우그룹에서 인수한 의류봉제 수출회사였다. 노동자 수는 3,500여 명이였다. 임금은 미성사 초일 2,400원으로 낮았다. 하루 10시간 노동이 기본이고, 보통 2~8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전일 시간이 월평균 80~100시간이었다. 또 18세 미만의 어린 노동자들에게는 7시간 근무가 기준인데도 8시간씩 일을 하게했다. 84년부터 조별로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은 하루 10~30분, 때로는 2시간의 무료 봉사를 하기도 했다.

남자 관리자들이 미성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등을 쓰다듬거나, 미성지갑을 미성을 고치면서 미성사의 치마 밑을 넣어 본다는지 하는 일은 비밀이해했다. 대우어패럴 노조 사무장이었던 강병자 씨는 스무살에 시계 지퍼 만드는 공정이 가장 어려운 곳인데, 그것을 만드는 공정에 배치되었다.

“C급 미성사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한 라인에 70명씩 일을 했어. 반장 언니가 매 시간 생산 체크를 하는데, 1시간에 60장, 2시간에 120장 이였어. 죽어라고 해도 너무 힘들었어. 천장이 낮아서, 햇빛이 들면 너무 더웠어. 아이들(다리마) 때문에, 큰 대야에 물을 넣어놓고, 선풍기를 돌리면서, 미성사들은 타일정, 박스, 키보 등을 마시웠지. 저녁에는 장판지에 췌가 나서 잠을 못 잤어. 밖에 있어 때는 대우가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은 ‘대우어퍼저러’라고 부르기도 했어.”

1984년 6월 9일 105명의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했다. 조합 신고필증이 나오자 조합원이 1,400여명으로 늘었다.

회사측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과 간부들을 협박하였고, 벌 시위가 없자 관리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을 동원해 노조 반대 시위, 노조 탈퇴 강요 활동을 벌였다. 노조를 탈퇴시키려고 인사와 대리가 19살 여성 조합원을 납치해서 송도호텔로 데려가 9시간 동안 감금을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산장으로 납치를 당해 8시간 동안 감금 당하기도 했다. 1,400명

조합원이 100명까지 줄어들었다. 위기에 빠진 노동조합은 사회에 노조 탄압을 하고자 여론에 호소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노조는 당시 야당인 민한당사 농성을 통해서 김우중 회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회사는 노조 탄압을 완화했고, 12월 말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근무 및 조합원 교육, 소식지 발간, 조합원 동반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갔다. 효성물산, 선일섬유 노동자와 함께 3차례에 걸쳐 대회 300여 명이 숙박하면서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1985년 임금인상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철야 농성과 연장근로 거부로 통해 일당 824원 인상, 상여금 2만 원 지급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승리였다. 대우어패럴의 또 다른 이름, 공장생활이 너무 힘들어 노동자들이 붙인 ‘대우어퍼저러’는 “구로공단의 희망”으로 바뀌었다.

나우정밀

(21)



♣ 나우정밀 자리에 생긴 IT트리아미

“노동조합 일상 활동의 모범”

나우정밀은 구로 3공단에 1공장과 2공장이 있었던 무선전화가 전문생산업체로 인해 무선전화가 시장의 선두주자였다. 80년대 말 무선전화기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 팀이 길고 잘 생긴 외국인이 한 마리가 무선전화기를 집에 들고서 주인에게 가지다주는 TV 광고는 유선전화기를 쓰던 사람들의 소비 충동 자극했다.

생산의 노동자가 1,000여 명에, 작업장은 진베이어 벨트 소리, 전화기 검사 소리로 항상 소음이 극심했다. 85년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3,140원을 받으며 10시간 이상 일을 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하루 전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결론지

리 하는 일도 있었기에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단 1분만 지각해도 작업대에 앉지 못하고 나이 어린 관리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들어야했다.”

나우정밀 노조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의 과정 속에서 민주화의 열기에 힘입어 8월 20일 결성되었고, 모범적인 일상 활동으로 유명했다. 노동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상집회의, 화요일에 대의원회의를 하고, 대의원들은 수요일마다 10시 15분에 15분 동안 조합원에게 노조활동보고를 했다. 대의원의 매주 보고도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역 및 전국 활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임금인상요구안을 만들 때에도 시장불가 조사, 조합원 임금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했고, 이를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나면, 조합원 각자가 1인 1요구를 만들었다. 이후 부서별로 요구안을 만들고, 다시 노조 요구안을 만들어,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했다. 노조와 조합원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노조는 노조의 요구안을 조합원이 책임 있게 결정하고, 요구안을 회사측에 관철시킬 때 조합원이 내일처럼 나서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조는 매월 회계보고를 식당계시판에 게시했다. 총무가 정리를 잘 해서, 들어온 돈과 쓴 돈의 내역을 매월 다 알려주므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하루 전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결론지

할 볼 수 있도록 A3 용지에 복사해서, 각 라인별로 돌려보냈다. 활동 하나하나에 조합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그것은 조합과 조합원이 한마음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루는 노동조합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고, 아줌마 조합원이 노조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를 보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요. 며칠 후 그 아줌마가 두통한 봉투를 들고 와서 냉장고를 사러만 서주시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노조에 냉장고를 사주려고 집행부 물대 돈을 건서서 냉장고 사라고 들고 오신 거죠. 아줌마 조합원들이 스스로를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집행부를 가족처럼 아끼고 믿어주시는구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통할했어요.” 노조 전 사무국장 정경화 씨의 말이다.

노조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잠자던 깨를 발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인 제철로 씨는 노조 편집부원 일을 하면서, 시를 잘 쓰는 재주를 살려 노조를 시를 제했다고 이를 계기로 영동로 문학 활동을 했다. 충청도 사투리를 쓰며 남을 배꼽 잡게 웃기는 재주를 가지셨던 아줌마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자기의 문학적 끼를 발산하기도 했다. 나우정밀 노조는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웃고 있는 율타리가 되었다.

서광



옛 서광 자리에 생긴 에이스하이랜드타워

“정부와 회사의 탄압에 운명으로 맞서”

서광은 카트리네트 상표의 여성 정장제 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다. 서광노조는 어용노조와의 갈등이 깊었다. 89년 4월, 노조는 준법투쟁을 통해 자주적 조합 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던 중 간부 5명이 강제 연행되자 전민 파업에 들어간다. 회사 측이 구두로 합의한 전년의 교섭을 반복하자 당시 정의부장이던 김종수씨는 “민주노조 사수하자” ‘생방살이’ 노동자의 시러움을 싫다’ ‘동지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구로지역에서는 매년 박정연 열사와 함께 김종수 열사를 열사문화제에서 기리고 있다.



필자가 남긴 말

“세상 살아간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성이야. 원성을 일만해도 피하라는 것.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인간미를 잃을 위험 없이하는 것을 일만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동시에 대한 배신이다”

②9 마이크로 공대위 ②9-① 미코팬시 ②9-② 마이크로세라믹



옛 미코팬시 자리에 생긴 마이크로미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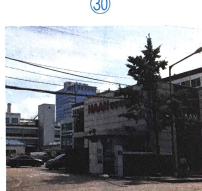
“3사의 공동투쟁으로 체불임금 해결”



옛 마이크로세라믹 자리에 생긴 영창실리콘

마이크로 계열사인 마이크로코리아(독산동, 600명)와 미코팬시(제 3공단 A, 200명), 마이크로세라믹(제 3공단B, 400명)는 불륜, 매직, 사프 등 문구류를 생산하던 회사였다. 이 세 회사는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3사의 공동투쟁으로 지금의 공동결재권과 자산처분권 그리고 경영권까지 넘겨주가 노동조합이 만성적인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부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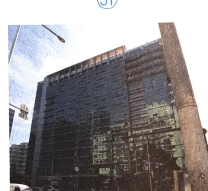


옛 부흥사 자리에 생긴 한경의정원과학

“구로동맹파업 5개 노조 중 하나”

부흥사는 전염병을 생산하는 의류 분업체였다. 1985년 6월 28일, 대우퍼페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시작한 구로동맹파업에 부흥사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이 동원한 강대들의 폭력으로 6시간 만에 파업 농성은 해산되었다. 부흥사는 구로동맹파업에 동참했던 5개 노조 중의 하나였다.

남성전기



옛 남성전기 자리에 생긴 남성프라자

“타 노조와의 연대활동 전개”

남성전기는 자동차 카세트 라디오, MP3, TV를 만드는 전자회사였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때, 조합원 300명이 25 26 일 지지농성을 했다. 86년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어용노조를 없애고 노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해고자의 복직과 회사의 폭력에 대항하여 가리봉전자, 로움 코리아와 함께 공동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출근 투쟁을 하는 등 연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원재 모습

“길고 긴 10년여의 노조 탄압”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모형비행기 조종기 등을 만드는 회사이다. 2002년 임금 인상투쟁부터 시작한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은 공격적인 직장폐쇄, 조합원 정리해고, 구로공장 분사 강요와 공장 폐쇄 시도, 조합원 징계와 해고, 조합원 왕따와 CCTV 감시,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2005년에 전 조합원이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행위 시정 권고를 받았다. 2011년 노사합의로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현재(2013년) 주된 생산은 필리핀 공장 에서 이루어지며 구로공장은 필리핀 공장의 하청인 셈으로, 조합원 8명이 근무한다.

로움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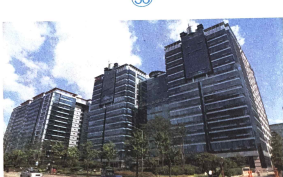


옛 로움 코리아 자리에 생긴국한로움 코리아

“가리봉전자를 합법한 회사”

로움 코리아는 반도체 제조업체로, 1978년에 노조를 결성했다. 구로동맹파업에 참여했던 가리봉전자와 같은 계열회사였다. 로움 코리아가 농성을 하면 생산 물량이 가리봉전자로 옮겨 가서 로움 코리아의 노조 노조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로움 코리아 노조는 가리봉전자에 노조를 만들도록 지원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때, 조합원 70명이 25-26일 파업이 끝난 후 지지농성 투쟁을 벌였다.

콘트롤레이타



옛 콘트롤레이타 자리에 생긴 대우테크노스타 8차, 백산-정인디지탈센터

“결혼·임신·출산의 백그라운드, 민주노조”

콘트롤레이타는 3공단에 위치한 미국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1,300명이 일하는 반도체 생산·수출기업이었다. 설립한 지 5년 만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다 벌어들였으며, 매년 막대한 금액을 본사에 송금했다.

콘트롤레이타는 당시로써는 고학력인 고졸 출신 여성들을 채용했고, 외자기업이라는 점에서 나은 보였지만,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다른 반도체업체와 비슷했다.

생리휴가를 받으려면 보건실에서 간호원에게 증명을 받아야 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감독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1973년 노조 설립 후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5%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사무직원과 남자노동자들에게만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던 것을 생산직 여성노동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설립 3년 만에 동종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임금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결혼퇴직이 관행이었는 데, 노동자들이 결혼을 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노조가 결혼퇴직 철폐운동을 벌였다. 남자직원에게는 결혼휴가를 주면서 생산직 여성노동자에게만 퇴직을 강요하는 부당함을 지적했다. 여성노동자들에게도 결혼휴가 6일과 출퇴근을 주고, 결혼 후 근무를 인정하라고 했다.

노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신·출산 후에도 직장 다니기 운동을 벌였다. 1980년에 출산 후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조합원이 있어 노조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간부들은 임신한 조합원을 수시로 불러 “언제 그만둘 거냐?”라며 압박을 주고, “남편이 능력이 없느냐?”와 같은 질문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서 사직을 강요했다.

노조는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조합원 교육을 해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처음으로 산전·산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차차 임신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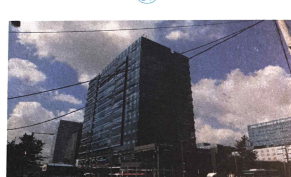
당시 근무했던 이해의 씨는 콘트롤레이타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할 때 생산성 향상분까지 조사하여 회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협조를 하기도 하여 단체교섭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80년 노동계 정화조치로 이영순 지부장과 유옥순 부지부장은 강제로 간부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듬해 임금인상 때 단체행동으로 농성, 태업을 벌이자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했다.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만 회사는 임금은 인상 해주되,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다고 버틴다. 미국 본사의 부사장이 방문을 했지만, 해고자 복직은 노동부의 압력이 있어서 회사 마우스로 복직을 시킬 수 없다고 했다. 회사는 3일 간 휴무를 하고, 휴무 중에 폐업을 벌였다.

1981년 임금인상투쟁은 해고자 복직 싸움으로 이어졌고, 다시 회사 직원수만 싸움으로 이어졌다.

콘트롤레이타는 여성노동자들이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노동 권리를 해달라고 해도 앞장 선 점에서 여성노동운동의 한 자취를 남겼다. 또한, 70년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정부에 맞서 해고자 복직 싸움과 폐업 철폐 투쟁을 벌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화전자



옛 남화전자 자리에 생긴 GBC가산비즈니스센터

“우리가 바라는 것, 노조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남화전자는 ‘자코’라는 국내 최초의 미니캐세트와 전자완구를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1978년 말 300여 명이 일하고 있었고 90%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조본은 씨는 그 당시 작업장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남뎡을 했어. 그 날 연기를 다 마시면서, 날 연기 때문인지 얼굴에 여드름같이 딱 뾰가 나더라구. 환풍기를 해달라고 했지. 작업대에 알루미늄 박스로 손만 여가게 해 놓고, 입구만 안 막고 팔랑개비를 만들어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바로 흩어져서 내가 다시 다 마셨어. 거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손이 시러 남뎡을 못 할 정도였어.”

1980년 1월 15일 남화전자는 이봉우 씨를 지부장으로 하여 노조를 결성했다. 그런데 같은 날 회사도 어용노조를 결성했다. 민주노조측은 어용노조의 줄기찬 싸움을 시작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지. 준법투쟁, 태업, 마보로도 많이 쫓아다녔어. 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실낱에 사방 길에 쳐들러갔지. 새뎡을 한다면, 백공까지 먹고 있어. 우리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를 거부하자. 부당수요단속법 위반 사실을 들어 사방을 구속시켰다. 구속에 감히 전 기적 이유는 남화전자 노조의 행동이 타 회사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조에서는 월급과 상여금도 받지 않고 회사를 살리겠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사용하기로 한 지원 자금으로 조합원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고, 노조를 파해시키려고 집결했다 찾아다녔다. 그러나 누구도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남화전자는 조합원들은 사회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 되었고, 남화전자는 결국 1981년 폐업을 했다.

2013년 6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1981년 남화전자 폐업은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명분으로 진행 되었으며, 조본은 씨 등 3명의 해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²⁴⁾ 진실화해위원회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노동부가 앞장서서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폐업을 했다고 한다.

기밀전자는 내비게이션과 위성 라디오를 만드는 공장으로 제 2공단에 위치해 있었다. 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했으며, 2004년 연간 순이익이 22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시작했다. 회사에서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하고 사일을 통보했다.

이 일이 일단이 되어 노는 회사는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인정하고,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농성을 시켰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24일이었다. 기쁜척도 노조가 거리에서 주장한 시간은 1,995일로, 2013년 8월 제농교육 노조가 2,076일 만에 노사합의를 하며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 국내 최장기간 노조 싸움이었다.

회사는 2005년 10월 노동부로부터 불법

그러나 현재, 복직한 기류전자 노동자들은 대기 발령을 받으며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 라인을 가동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자금 19억 원을 유치한 후에도 노동조합에 아무런 생산 계획을 밝히지 않

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지불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소현 전 본회장은 “사측은 회사가 ‘더러웠다’, ‘생산라인을 가동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한 말 뿐인 경영체제도 두루뭇하기 많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계속 8층 의회실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²¹⁾

기타청년 노조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자나 비정규직, 파견법을 사회적 제도로 만든다.

★ 파견노동자란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대신 인력관리회사와 단기 또는 장기로 계약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노동자를 말해요. (내이비 지식백과)

노동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달리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사실을 사업주에게 제공 하는 노동자를 해요. 주면에서 짐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용역 등이 있어요.

⑬



중심사무국으로 갈라진 것임. 당시 오거돈은 모든 것이 되지는 못했다. 가리봉, 동대문대, 동대문대, 유공업무 등 가리봉은 모든 문화를 집결지었다.

국로당만 주변에는 모든 조직을 집결하는 동대문대에는 모든 조직을 집결했다. 가리봉 오거돈에서 2공당으로 가는 길목에 국로당사무상당소가 있었다.

국로당사무상당소는 1987년 11월 13일 천대원 회의의 뜻을 기리고 11월 13일 '천대원 기념가리봉부설 부설 국로당사무상당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한다.

이후 국로당사무상당소로 이름을 변경했다. 천대원, 삼당과 교육, 농업의 사업분야는 변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정치, 삼당과 노동력의 교육 사업부를 축으로 국로당의 대표직이 노동력 대표로 자리

매겼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87년 노동자투쟁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생기고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모두들 가리봉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가 더욱 높아졌다. 87년과 88년 가리봉 국로당역의 1년과 30-40여 개는 노동조합이 결집되었다.

국로당사무상당소와 같은 노동단체들의 가리봉은 대표로 있던 삼당소는 가리봉, 가리봉 위치를 옮기고 사무실을 함께, 국로당사무상당소와 사무실을 함께, 국로당사무상당소와 사무실을 1990년대 후반부터 옮기고 현재는 민주노동당 서울본부 부지국회의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한바는 상당수 모두 우형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했다. 87년부터 89년까지 서울 지역만 1년에 30~40여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구로노동상담소와 같은 노동단체들은 기어이 지러졌다.

가리봉 육교에 있던 상담소는 가리봉으로 거리를 회전을 옮기고 구로청년회, 구로노동자문화회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구로노동연구소는 1990년대 후반 반공을 달고있던 현재의 서울본부 서울본부지부지회까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2022년 06월 25일 토요일
02면

시선

내고향 울산 친구들에게 '노동자 투쟁'을 아는지 물어보면, 안다고 답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노동 부모의 자식이지만 노동자대투쟁이라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은 보였다. 그러나 친구들을 포용해 등산군에 노동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얻어낸다면, 그들은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일

했음을 떠올리며 ‘민주노조’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측근자들은 노조의 기부가 세대에 노조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전승이라고 하고 있다.

민원철 장차관은 공판정부를 매운년 7-9월 6, 29일연으로 실천해 민주주의의 열매를 민주주의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연인의 노동운동 생활이라는 것을 본받고, 전국적 노동자들과 “노동자와 고심다”는 의회로 함께 일하고 있다.

비 부당한 대우를 받게 어떤 목적을 추구 조인라 하더라도 공평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조지 자제로 된 한이 없다. 민주노조가 그의 마음을 찾아 보여 주자, 회사는 갈 수 있게 된다.

지난 지금도 생생한 교훈이 된다. 나
속이지 말라' '남들과 나누면서 살
았다. 단순한 말들이지만, 지금 돌아
다루고 나누는 줄의 경향이 담겨 있
는 건 힘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잊은 아주 일부의 개인들만 역사에서
지금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들은 서로 돕고 살며 생애가 힘을 기
르곤한바는 사물을 만들 수 있다.
그다. 만타고요! 1971년 9월부터 기
어사서 지었다. 나는 천공하고도
노들지니 유산과 함께
노들지니 유산을 물림으로 산다.
본인이었다. 1970-1980년대
북쪽 지역이다. 내 노들지니, 6층
은 한국 근대주의를 이끌어온 주역
이한 것을 담담하게 어울려 세대로
전해 준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노들
이 북쪽에 다 나온 사회를 반영했다
노들지니 대우를 35주년 기념한다.
6층 때부터 자신들이 '영양'을 20대
를 전달했다는 데 열광한다. 하지만
중에서 더 고치면 나쁜 전승도 있
기기에 훨씬 풍부한 참조점이 된다.
노들지니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장면에
정물 아홉 개를 겹친다. 가운데 색
정물은 아홉 개 중, 어느 색 정물
노들지니에나, 가진 것 없는 사람
노들지니.



●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구로공단을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했다. 박정희의 저격자 정책은 농촌의 급격한 해체로 이어져 농촌을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자본에 공여해 저임금 생산간 노동에 기초한 획일적 수출경제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 서울지역 노동자들은 1970년 전태일 정신과 지속적인 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온
 천계복·최노준, 민주노조를 결성했던 원동모·노종호 등의 투쟁,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경험했다.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했다. 한편 정치의 중심지이자 투쟁의 폭발성이 어
 는 지역보다 큰 곳이 서울이라 자본과 정권은 서울의 노동운동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통제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지역 노동자대투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
 게 불붙기 시작했다.

● 7월 22일 구로구 독산동의 롯데백화에서 회사 측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노동조합의 결성되었고, 27일 성수동의 영웅정기에서도 노동조합의 결성되었다. 이후 잠시 잠복기를 거친 노동조합의 투쟁은 8월 15일 OB맥주 영동호 공장과 14일 구로공단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8월 하순경에는 서울 전 지역으로 투쟁 열기가 확산되어 구로공단, 공장이 밀집한 영동호 지역과 성수동 지역 등에서 폭발적으로 투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기가 무급 실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영송정기 노동자들은 7월 24일 '노동조합 준비위'를 만들고 '노조 결성의 자유 보장과 임금인상' 등 12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비식수와 협상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노조만 결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건을 들어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58명의 노동자는 27일 급속노조 시무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이후 12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극렬노조 4대역'라는 구호를 노조에 조직해 노조 가입자들을 화두, 협박했고 '외부세력 개입' 운운하며 노조의 간부를 해고시켰다.

8월 13일부터 해고자들의 출근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회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해고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에 위축되어 출근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폭력 탄압을 사회문제화 시켜 교섭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민주당 농성을 결정하였다. 17일 해고자들은 민주당사에 들어가 ‘회사는 노조 탄압을 중지하라’, ‘폭력 사태 공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공장 민주화 없이 사회 민주화 없다’ 등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의 자유와 해고자의 원직 복직’ 등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수락함으로써 3일만에 농성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본, 정권, 구사대 삼각동맹으로 치고 들어온 민주노조 말살 책동과 현장 통제는 가혹했다. 결국 임원 재선거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기존 임원들은 모두 교체되고 노조는 어용화 되고 말았다.

▷ 삼성제약 여성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

삼성제약노조는 조합원 150명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노조로 결성 10년 동안 민주노조로서 치열한 투쟁을 이어 왔다. 1987년 입단협은 6월 8일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지만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을 강타하자 삼성제약노조는 7월초, ‘부당 해고자 복직, 상여금 600% 지급, 주 44시간 근무, 하기휴가 실시’ 등의 요구 사항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대략 두 달에 걸쳐 교섭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장의 무성의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8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회사 측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응했다. 경리부 남자 직원 10여명이 농성장에 난입하여 어떤 자는 옷을 벗고, 바지 혁대를 빼버린 채 정신없이 날뛰는가 하면, 어떤 자는 무자비하게 여성 노동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혼들림 없이 이를 막아내자 다시 30여 명의 남자 사원을 투입했다. 이들은 농성장에 오물을 뿌리고 의자, 전화기, 화분, 유리 조각 등을 던져 놓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보고 분노한 남성 노동자 35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농성에 가세하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삼성제약 노동자들은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 끝에 9월 14일 ‘상여금 50% 인상, 하기 유급휴가 인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쟁취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 서노협 건설의 기지를 구축한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 결성 투쟁 <

동아건설 창동공장의 노조 결성 투쟁은 본조의 어용성을 극복하고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지부 독자적으로 세워 냈다는 점,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건설의 선봉이자 그 기지로 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지도력을 투쟁 속에서 성장, 발전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6년 12월 동아콘크리트가 동아건설로 합병되면서 회사 측에서 상여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은 밤새 불붙인 경우 드럼통으로 사무실을 포위함으로써 회사 측의 양보를 받아냈다. 비록 투쟁을 이끌었던 이들이 회사의 회의로 해의 건설 현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성과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계기로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형성되었다. 철근반 주임 단병호도 그중 한 명이었다. 단병호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은 7월 5일 야간에 한 개 부서를 이끌고 화확연명으로 가 기습적으로 노조 결성식을 개최하고 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10년전에 부평공장에 본조가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의신고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없는 지부 노동조합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8월 18일, 회`사의 허를 찌르며 파업 농성이 시작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부평 본조 위원장을 보내 “회사와 대화하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으니 농성을 풀라”며 노동자들을 회유했지만 이는 되려 어용노조의 본질이 폭로되는 계기였다. 파업은 8월 18`26일까지 9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 유일하게 아는 노래 ‘흔들리지 않게’를 불러댔으며 유행가 노가바, 장기자랑,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며 파업농성을 지속했다. 조합원의 요구는 시급 30원 인상이었으나, 집행부는 50원 인상으로 확정하여 회사 측과 교섭을 했고, 결국 `시급 50원과 월 3시간 유급 노조 교육시간 확보` 등을 쟁취 했다.

이후 동아건설 창동지부는 토요일 오후마다 밤잠을 설치며 소모임 활동을 이어가 역량 있는 간부들을 배출했다. 나중에 이 동력이 1987년 10월 `통상임금 쟁취투쟁`에서 직책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분 1년 치를 되찾는 힘으로, 다시 1988년 상반기 임투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힘이 되었다.

▷ 위장폐업에 맞서 100일 투쟁을 벌인 맥스테크 여성노동자 <

마포구 도화동에 자리한 맥스테크사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위장폐업으로 악명을 떨쳤다. 맥스테크는 신촌의 단칸방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양, ㉠한국상역, ㉠값스, 하니 구미 지사 등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다. 맥스테크 노동자들은 대부분 600명으로 구성된 ㉠한양 소속이었으나 차츰 100, 200, 270명 등의 규모로 나뉘어 제일전산, 광주 대승시스템, 맥스테크사, ㉠한양 등으로 갈랐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회사의 의도(세금 혜택)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된 것이다. 현장이 유해 작업장임에도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6개월이 지나면 시력이 떨어져 노동자 90%가 안경, 렌즈를 사용했어야 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회사는 기본급 97,000원이라는 저임금을 주었고, 도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일삼았다.

이런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270명 노동자들은 1987년 8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협박을 가하는 한편, 계열 회사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위원장을 회유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사장은 “도저히 불쾌해서 회사 운영 못하겠다. 폐업이다”라며 다음날 회상 정문에 폐업공고를 붙였다. 위장폐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로 시작된 투쟁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연대투쟁을 이끌어냈고 100여일만에 승리를 쟁취했다. 투쟁 승리 1차 보고대회가 열렸던 12월 15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서울지역 15개 사업장 노조 위원장들이 모여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1988년 5월 마침내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가 건설되었다.

이후 맥스테크는 1988년 1월 2일, 설날이 지나자마자 2차 위장폐업을 단행했고, 이에 맞선 투쟁이 다시 시작되어 2월 27일 최종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를 지켜냈다.



▷ 파견노동반대,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반대한 노스웨스트항공 노동자 <

노스웨스트 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다. 투쟁의 불모지로 알려져 왔던 외국기업에서 발생한 장장 100여 일간의 지속적인 파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20여 일간 파업을 전개한 일본항공공사(JAL)와 함께 1987년 대투쟁의 중요한 한 사건이었다. 투쟁의 최대 쟁점은 인원적 노무관리 철폐와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 철폐였다.

노스웨스트(NWA)는 직원 모집 광고를 내서 합격한 사람들을 부서에 배치하는데 일부 부서는 정직원이고 화물부, 여객부, 정비부에 합격한 사람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한국산업인

전주식회사(KSC)라는 용역 회사의 직원이 되어 노스웨스트에 파견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초봉이 NWA가 30만원인 반면, KSC는 21만원에 불과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임금 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KSC 사측에서는 임금 총액의 80%만 파견노동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용역료로 착취했다. 외국인과의 임금 격차도 심각해 NWA에 소속된 미국인 여성 승무원의 초봉이 80만 원인 데 비해, 한국인 여성 승무원은 27만원에 불과했다.

9월 9일 NWA 노조원과 KSC 파견노동자들이 하나 되어 파업 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은 즉각 전화선을 끊고, 노동자들을 추천한 지도교수들에게 거짓 편지를 발송하여 이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출근 수속대를 점거하고 X자를 한 마스크를 쓴 채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사측은 즉각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한편 같은 조건에 있던 JAL의 한국 직원들도 9월 18일을 기해 동조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항공기 취항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 급여의 3분의 1만을 지급했으며, 상여금도 전면 중단시켰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다. 장기농성 한달 만에 JAL이 타결되었고, 10월 9일 노스웨스트도 `KSC`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NWA 직원으로 흡수한다 `는 합의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사측도 못 가 사측은 파업농성에 참여했던 여객부 정직원 13명 전원을 화물부로 전격 인사조치 하였다. 이에 노조는 업무 구분의 원칙 준수와 비상식적 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NWA와 KSC 노동자 대표 4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이어 전조합원 133명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단식노동자에 대해 태극기가 걸렸는데 정부 관계 공무원이 달려와 `태극기는 기를 때만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 문제로 태극기를 쓰면 법에 걸린다. 너희들이 무슨 독립운동가냐`며 태극기를 떼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식 10일째 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14명이 귀국하여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회사측은 파업농성을 이탈하면 즉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회유를 계속했다.

결국 12월 들어 파업 대오는 하나, 둘 이탈자가 생겨났고, 12월 18일 2차 파업농성 기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투쟁을 종결되었다. 협상 타결 내용은 △ KSC 직원을 198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흡수한다. △ 임금은 `후후상박`식으로 17`25%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2차 파업의 주요 요구였던 업무 구분 명시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3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로

87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전, 민주노총 건설!

민주노총의 역사 한가운데 100여년 이 땅의 노동운동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1945년 해방 공간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노동자의 인간적 삶과 미군정 반대와 조국통일운동에 나선 전쟁, 4.19혁명 5.18광주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노동자, 70년대 전태일과 민주노조운동, 80년대 민주노조와 구로동맹파업,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다시 쓴 자주적, 민주적, 연대하고 투쟁하는 이 땅의 노동운동의 근본과 정신은 민주노총의 정신과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0여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세우는 것은 곧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아는 것이며,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의 과제와 운동생명으로 하는 일입니다.

· 1987

7~9 노동자 대투쟁 1,300여 노동조합 결성
12월 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 창립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자주·민주적 노동조합연대체(노조협의회) 건설

· 1988

전태일정신 계승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1989

공동임금인상투쟁본부 구성, 전국 공동임투 전개

· 1990

1월 22일 전노협 건설 같은 날 3당 민자당 합당 보수대연합, 공안합수부 구성 민주노조운동(전노협) 극심한 탄압

· 1991

5월 강경대, 박창수 의문사 노태우정권퇴진투쟁

· 1992

ILO 공대위 활동 /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 1993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 사회개혁투쟁
한국노총-경총 임금인상가이드 라인 분쇄 투쟁

· 1994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출범

· 1995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범

[민주노총 창립 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